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김 형 수 (Kim, Hyeong-soo) *

(E-mail: lodkhs@hanmail.net)

조 우 흥 (Cho, Woo-hong) **

(E-mail: csdcj@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09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 : 2009년 5월 1일

게재확정일 : 2009년 5월 18일

- * 학위취득대학 : 조선대학교
현직: 조선대학교 강사(제1저자·교신저자)
- ** 학위취득대학 : 조선대학교
현직: 조선대학교 강사(공동저자)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에 대해 학교적응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터넷 중독을 설명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중 417명을 유의표집(judgemental sampling)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chi-square test, t-test, One-Way ANOVA,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유대경향이 낮을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남자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을수록, 학교수업적응이 낮을수록, 고등학생일수록 인터넷 중독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인터넷 중독은 가족의 건강성 및 학교적응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학교생활적응 및 수업태도를 배양하고 가족의 유대성 강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가족건강성, 학교적응, 인터넷 중독

I. 서론

인터넷 중독은 근본적으로 약물중독과 동일한 정신병리 현상인 것이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단지 아이들이 컴퓨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이며 아이들을 꾸짖어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게 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사회의 인터넷 보급률과 중독 추이율을 볼 때 앞으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청소년(만9세~19세)의 14.4%가 인터넷 중독을 의미하는 고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群)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인터넷 이용인구가 724만5000명임을 감안하면 100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7명 중 한 명이 인터넷에 중독돼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의 상담건수도 꾸준히 늘어났다. 센터가 처음 설립된 2002년엔 2599건에 불과했지만 2004년 1만8299건, 2005년 3만2833건, 2006년 5만1777건, 2007년 7만2559건으로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2008년 7월까지 집계된 상담건수 역시 3만6239건으로 작년의 절반을 넘는다(조선일보, 2008.9.11).

이처럼 최근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은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저연령화와 높은 중독성 경향이라는 새로운 변이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단 인터넷에 중독되면 그 치료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많은 연구와 실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전략의 미흡함을 반영하는 것이

며,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발달과정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밀한 고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크게 개인·심리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있다. 개인·심리적 요인으로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충동적이며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 부족 등의 불안정한 과도기로 많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낮은 자아존중감 상태에 있거나 자아 정체감이 혼란할수록, 그리고 우울하고 고독할수록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재희, 1998; 이석범·이경규·백기청·김현우·신수경, 2001).

그러나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중독 자체가 좋다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중독이라도 되고 싶은 사회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변의 사회·환경적 원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생활공간인 학교와 가정의 이해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을 인터넷 중독으로 몰고 가는 환경 원인으로 학업스트레스,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등과 같은 학교적응 문제와 가족건강성 문제가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명숙, 2005; 한미영, 2006).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즉 가족의 건강성과 학교적응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아보는데 있다. 그 동안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가족의 건강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청소년

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본 연구는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 지도를 위한 방안과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의 의의를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도구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인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사이버공간은 그들의 무한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장이 되고 있다. 즉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을 자신들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었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사회를 경험한다(한미영, 2006). 이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접근 용이성이 가져다주는 개방성과 민주성을 통한 사이버 참여나 연대를 통하여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일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은 피상적 대인관계를 맺고, 현실의 삶을 도피하려는 사이버 공간으로 활용되고 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문제 등 많은 현실 부적응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원인에 대해 Suler(1996)는 사이버공간이 청소년이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보다 손쉽게 충족시켜 주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사이버공간이 자아정체감을 탐색하기에 좋고, 사이버 공간에서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분리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이 되

어 준다는 것 외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였다(강철, 2005 재인용). 이계원(2001)은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자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사회적 지지와 함께 부모의 양육행동 중 방치, 과잉기대, 비밀관성, 과잉간섭, 학대, 방치 등의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인터넷에 몰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 중독은 현실세계의 또 다른 생활공간으로 등장하면서 가치의 혼란과 생활의 이중성이 초래되어 정체성의 위기가 심화되고, 결국은 자기로부터의 소외가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터넷에 중독되면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되는 것처럼 내성과 금단증상 및 사회적, 직업적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Young, 1996). 따라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감정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은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생 529만8119명의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결과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9만9584명이었다. 초등학생 3만9497명, 중학생 3만7124명, 고등학생 2만2963명 등이었다(중앙일보, 2008.10.27). 김선우(2002)의 연구에서도 15-3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557명중 27.6%가 초기 인터넷 중독자였고 중중 중독자도 3.1%나 되어 전체 30.7%가 인터넷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10대 청소년은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6.8%가 인터넷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인터넷 중독은 대상자의 특성, 인터넷 자체 속성, 개인·심리요인, 가족·학교생활요인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즉 10대이면서 남자일 때 더 많이 중독되는 경향이였으며(Griffiths, 1999), 인터넷 사용시간

이 갈수록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다(윤영민, 2000). 강철(2005)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남학생이면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우울 및 포기성향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적응 유연성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습관과도 관련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았다(류미라, 2002; 박소희, 2002).

인터넷 사용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중독상태에 빠지게 되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가상 세계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다 보니 오히려 사회적 능력이 떨어져서 친구들과 멀어지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들(Young, 1996; 황상민·한규석, 1999)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인터넷의 사용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다양한 사회와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대인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임과 동시에 일상생활 장애, 현실구분 장애, 금단, 가상적인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심리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고위험군의 특성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하여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현상을 설명하고 심각성을 알리는 연구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지도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관리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러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성이 청소년

년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2. 인터넷 중독과 학교적응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생활의 장이다. 그들이 적응해야 할 환경에는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의 경우 모든 일과가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생활은 중요한 요소이다. 즉 학교적응성은 개체와 환경과의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양자의 사이에 긴장이나 감정적 대립이 없이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사회적 역할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그리고 감정과 가치관 등을 가진 역동적인 체제로서 적응할 수 있는 인성을 길러 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차주연, 2002; 변주홍, 2006).

김용래(2000)는 학교적응을 “학습자의 요구를 학교상황내의 제반 요구에 잘 조절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내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라고 정의했다. 또 학교적응의 구성요소로는 학교교사적응, 학교생활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환경적응 등을 들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위의 5가지 하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사적응은 학교교사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교사와의 관계에서 수반되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장우민, 2003). 인터넷 중독 청소년이 비중독 청소년보다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중독 청소년이 비중독 청소년에 비하여 인터넷 중독과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장희, 2003). 또한 조준범(2001)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의 인터넷 통제가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은 교내의 규칙과 질서, 각종행사, 시설물의 활용, 준비물 지참, 교내홍보와 게시물 확인 등을 중심으로 교내 생활전반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잘 적응해 가는 것이다(김용래, 2000).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추장희, 2003; 최유엔, 2003; 한미영, 2006).

셋째, 학교수업적응은 지식 습득 과정으로 교사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최유엔, 2003; 김진희, 2005; 한미영, 2006).

넷째, 학교친구적응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학교급우와 잘 어울리는가를 말하며 이는 협동적·능동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는 사회적응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김덕희, 2005).

다섯째, 학교환경적응은 학교환경을 바르게 수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교환경에서 수반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해 가고 있는 정도이다(김용래, 2000). 학교친구적응 및 학교환경적응 역시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상실되어 학교환경에 불만을 갖게 되며, 불안과 소외감, 공격적인 행동 특성으로 학생-학생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학교부적응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조은숙, 2003; 이명숙, 2005).

그 외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은 학습동기와 학업성적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auge and Gentile, 2003; 구성옥·맹승렬·유관희, 2005; 윤미선·이영옥, 2005; 이유경·채규만, 2006; 장수나, 2007).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3. 인터넷 중독과 가족건강성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 개개인의 자아개발, 성취와 더불어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유대성이 균형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의 건강성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인터넷 중독의 원인도 일반 일탈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Young(1997)는 가정과 사회에서 냉담하게 되면 청소년은 그들을 지지해주는 인터넷 속에 빠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깊어져 관계가 멀어질 때, 자녀들은 부모 대신 그들이 말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찾게 되며 그 상대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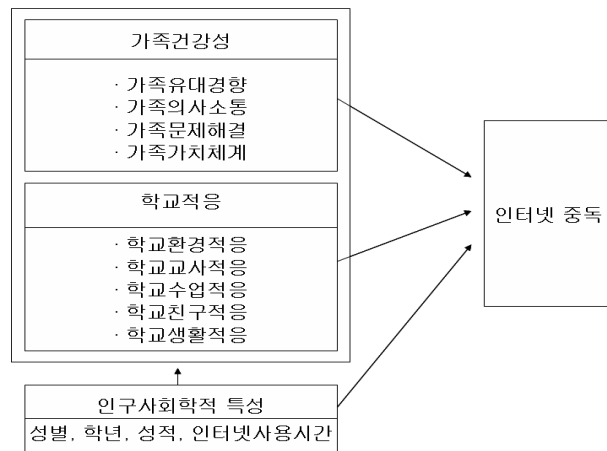
즉 부모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부정적이며 갈등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이 많다(조춘범, 2001; 권정혜, 2005). 김연화·정영숙(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충족되지 않은 관심과 애정의 욕구를 인터넷을 통해 채우려고 더 인터넷에 빠져들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가정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넷은 친구를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으며, 서로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모 또는 가정대신 찾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통제수준이 높을수록(윤영민, 2000; 조춘범, 2001; 김종원, 2002; 김진순, 2002; 이정연·최영선, 2002; 최영선, 2002), 부모가 청소년 자녀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시간관리를 하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지각할수록(박정은, 2001; 조춘범, 2001; 안세라, 2003), 부모와의 의

사소통에 있어서 청소년이 부모의 행동이 일방적이라고 지각할수록(윤영민, 2000; 조준범, 2001; 박정은, 2001; 백승문·황미영·김영희, 2003; 김정신·김진희, 2003),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록(김경신 외, 2003; 안세라, 2003), 부모와의 갈등정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김교현, 2001; 조준범, 2001), 긍정적 가족 정서가 감소할 정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이정연·최영선, 2002), 부모지지가 낮을수록(안석, 2000; 김정신 외, 2003),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본 연구에 이용된 조사대상의 표본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남녀 1-3학년, 고등학교 남녀 1-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고등학교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52부의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절차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는 유의표집하여 2008년 5월 16일부터 6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465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430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417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변수의 구성 및 측정

1) 배경변수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을 조사하였다.

2) 가족건강성

가족의 건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은주·유영주(1995)가 제작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총 34문항으로 가족원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6문항) 그리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바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요인분석의 적용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34개항목이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베리맥스(Varimax)방법에 의한 직교회전에 의하여 요인적재량은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가족건강성 전체신뢰도(Cronbach's α)는 .963이며 가족원간의 유대는 .913,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은 .876,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은 .841,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는 .873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Likert형 5점 척도로 총체적인 가족의 건강성 및 각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학교적응

학교적응척도는 김용래(1993)가 제작한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총41문항으로 학교환경적응(10문항), 학교교사적응(10문항), 학교수업적응(8문항), 학교친구적응(7문항), 학교생활적응(6문항)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바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요인분석의 적용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41개 항목이 5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베리맥스(Varimax)방법에 의한 직교회전에 의하여 요인적재량은 모두 0.4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학교적응 전체신뢰도(Cronbach's α)는 .952이며 학교환경적응 .915, 학교교사적응 .906, 학교수업적응 .876, 학교친구적응 .827, 학교생활적응 .752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Likert형 4점 척도로 총체적인 학교적응 및 각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는 Young(1998)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척도의 판별기준을 이용하여 전체 20문항 100점만점의 척도에서 40점 미만일 경우 비중독 집단, 40점-69점일 경우 경미한 중독집

단, 70점 이상일 경우 심각한 중독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9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14.0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사용한 신뢰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square test, t-test,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족건강성, 학교적응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우선 표본의 성별구성은 417명 중에서 남자청소년이 196명(47.0%), 여자청소년이 221명(53.0%)으로 여자청소년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년은 중2 100명(24.0%), 고2 95명(22.8%), 중1 62명(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은 중위권 225명(54.0%)이 가장 많았다.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1시간-2시간미만이 134명(32.1%), 30분-1시간미만이 95명(22.8%), 30분미만이 80명(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자	196(47.0)	학업성적	상	98(23.5)
	여자	221(53.0)		중	225(54.0)
	계	417(100.0)		하	94(22.5)
학년	중1	62(14.9)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계	417(100.0)
	중2	100(24.0)		30분미만	80(19.2)
	중3	55(13.2)		30분-1시간미만	95(22.8)
	고1	58(13.9)		1시간-2시간미만	134(32.1)
	고2	95(22.8)		2시간-3시간미만	65(15.6)
	고3	47(11.3)		3시간이상	43(10.3)
	계	417(100.0)		계	417(100.0)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인터넷 중독정도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인터넷 중독이 있는 40점이상 청소년은 263명으로 조사대상자의 63.1%를 보이며 인터넷 중독이 없는 40점미만 청소년은 154명으로 36.9%을 보이고 있다. <표 2>의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결과를 보면 학년, 학업성적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서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성별에서 보면 남자청소년의 65.3%, 여자청소년의 61.1%가 인터넷 중독으로 나타나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았다.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있어서는 3시간이상 83.7%, 2시간-3시간미만 77.0%, 1시간-2시간미만 63.2%, 30분-1시간미만 62.7%, 30분미만 41.3%순으로 나타났으며 즉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분석

구분	N(%)	인터넷 중독정도			X ²	
		전체 417(100.0)	비중독 154(36.9)	중독		
				경도 244(58.5)		심도 19(4.6)
성별	남자 여자 계	196(100.0) 221(100.0) 417(100.0)	68(34.7) 86(38.9) 154(36.9)	119(60.7) 125(56.6) 244(58.5)	9(4.6) 10(4.5) 19(4.6)	11.389**
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217(100.0) 200(100.0)	83(38.2) 71(35.5)	124(57.1) 120(60.0)	10(4.6) 9(4.5)	.361
학업성적	상 중 하	98(100.0) 225(100.0) 94(100.0)	40(40.8) 85(37.8) 29(30.9)	53(54.1) 130(57.8) 61(64.9)	5(5.1) 10(4.4) 4(4.3)	2.478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30분미만 30분-1시간미만 1시간-2시간미만 2시간-3시간미만 3시간이상	80(100.0) 95(100.0) 134(100.0) 65(100.0) 43(100.0)	47(58.8) 35(37.3) 50(36.8) 15(23.1) 7(16.3)	31(38.8) 57(57.5) 77(58.0) 46(70.8) 33(76.7)	2(2.5) 3(5.2) 7(5.2) 4(6.2) 3(7.0)	30.373** *

* p<.05, ** p<.01, *** p<.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학교적응의 차이분석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가족건강성, 학교적응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특성의 수준이 두 집단인 경우에는 t-test를 사용하고 세 집단이상인 경우에는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또한 One-Way ANOVA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집단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분석(Scheffe)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가족건강성,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가족건강성, 학교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가족건강성,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성적에서는 학교적응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한 Scheffe검정결과 상위권과 하위권간에 학교적응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서도 학교적응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터넷 사용시간이 적을수록 학교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한 Scheffe검정결과 30분 미만과 3시간이상간에 학교적응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학교적응의 차이분석

구분		평균		t or F		post hoc (scheffe)	
		가족 건강성	학교 적응	가족 건강성	학교 적응	가족 건강성	학교 적응
성별	남자	3.0531	2.2083	-2.124*	-2.031*		
	여자	3.2270	2.3070				
학년	중학생	3.1325	2.2517	-1.643	-.383		
	고등학생	3.2461	2.2704				
학업 성적	상=a	3.2851	2.3666	1.699	4.714**		a≠c
	중=b	3.1814	2.2615				
	하=c	3.0981	2.1482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30분 미만=a	3.2520	2.3829	.850	3.675**		a≠e
	30분-1시간미만=b	3.2125	2.3184				
	1시간-2시간미만=c	3.2146	2.2499				
	2시간-3시간미만=d	3.0731	2.1711				
	3시간이상=e	3.0959	2.0743				

* p<.05, ** p<.01, *** p<.001

4. 가족건강성 및 학교적응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대한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묶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학년, 학업성적,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변수들은 통제하였다. 분석에 앞서 성별, 학년, 학업성적은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하였다. 또한 각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검사를 수행한 결과 변수들의 값이 모두 10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에 따라 세 가지 모형을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투입하였고 모형 2에서는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으며 모형 3에서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형 1을 살펴보면, 모형의 결정계수(R²)는 .131 즉 모형의 설명력은 13.1%이고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인터넷 사용시간, 성별, 학년 순으로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들을 추구한 모형 2에서는 가족건강성이 인터넷 중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대경향만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19.4%로 나타났고 모형 1에 비해 설명력이 6.3%로 증가하였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유대경향, 인터넷 사용시간, 성별, 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 하위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 3에서는 학교적응이 인터넷 중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청소년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에 대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인터넷 중독을 설명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및 결과에 따른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인터넷 중독정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중독이 있는 40점 이상 청소년은 조사대상자의 63.1%를 보였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생 529만 8119명의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결과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9만9584명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적이 인터넷 중독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주애란·박인혜(2005)의 연구에서 성적이 인터넷 중독과는 유의한 연관이 없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에서는 성적과 인터넷 중독의 연관성을 논의하면서,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높다고 하였다. 이렇듯 통제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높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낮다고 한다(Duckworth et al., 2007). 이러한 점에서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성별과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남학생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다는 연구(김혜원, 2001; 주애란·박인혜, 2005; 이대환 외, 2006)가 있으며, 소수이긴 하지만, 여학생에게서 인터넷 중독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학교수업적응만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이 29.0%로 나타났고 모형 2에 비해 설명력이 9.6%로 증가하였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최종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관련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유대경향($\beta=-.292$), 인터넷 사용시간($\beta=.282$), 성별($\beta=-.146$), 학교생활적응($\beta=-.141$), 학교수업적응($\beta=-.139$), 학년($\beta=-.11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유대경향이 낮을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남자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을수록, 학교수업적응이 낮을수록, 고등학생일수록 인터넷 중독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가족건강성 및 학교적응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Beta	VIF	B	Beta	VIF	B	Beta	VIF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298	-.178**	1.228	-.249	-.149**	1.252	-.243	-.146**	1.298
학년 ²⁾	-.154	-.109*	1.243	-.153	-.109*	1.281	-.156	-.111*	1.282
학업성적 ³⁾	-.005	-.005	1.036	-.023	-.022	1.043	-.049	-.047	1.130
인터넷사용시간	.175	.305***	1.057	.170	.296***	1.068	.162	.282***	1.107
가족건강성									
가족유대경향				-.281	-.303*	3.364	-.270	-.292*	3.911
가족의사소통				.048	.051	3.612	.050	.053	3.628
가족문제해결				-.051	-.056	3.141	-.056	-.062	3.243
가족가치체계				.065	.065	2.251	.062	.062	2.442
학교적응									
학교환경적응							.044	.041	2.187
학교교사적응							.095	.087	2.611
학교수업적응							-.160	-.139**	2.527
학교친구적응							.038	.031	1.890
학교생활적응							-.195	-.141*	1.908
R ²	.131			.194			.290		
R ² 변화량				.063			.096		
F	15.528***			12.289***			8.252***		

* p<.05, ** p<.01, *** p<.001

1) 1=여자, 0=남자 2) 1=중학생, 0=고등학생 3) 1=상, 0=중, 하

연구(임진숙·강성국·김성식, 2005; 박선희·전경자, 2007)도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인터넷 활동 또는 중독 수준차이에 따른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가족건강성 및 학교적응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에 따라 세 가지 모형을 구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관련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족유대경향($\beta=-.292$), 인터넷 사용시간($\beta=.282$), 성별($\beta=-.146$), 학교생활적응($\beta=-.141$), 학교수업적응($\beta=-.139$), 학년($\beta=-.11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유대경향이 낮을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남자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을수록, 학교수업적응이 낮을수록, 고등학생일수록 인터넷 중독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 정도와 학교적응의 하위영역과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수업적응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거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반사용자군이 인터넷 중독 집단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에 있어서 훨씬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김광수·장승현·조병만·임을미(2001), 조은숙(2003)의 연구결과 및 안복모(2002)의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생활적응에서 비중독 학생들이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이명숙(2005)의 학교환경적응이나 학교생활적응에서 인터넷 중독수준이 낮을수록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 대한 반복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관련하여 가족의 유대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청소년이 부모의 의사소통이 일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한다는 연구(윤영민, 2000; 조준범, 2001; 김경신·김진희, 2003)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이 부모

의 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한다는 연구(안석, 2000; 김경신·김진희, 2003)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가족유대경향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가족의 가치체계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염영란, 2007).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을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해서 가족의 건강성과 관련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인터넷 중독은 가족의 건강성 및 학교적응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학교생활적응 및 수업태도를 배양하고 가족의 유대성 강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사회에서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 및 실천적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 사용시간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에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도록 이용시간이나 방법에 대한 지도와 더불어 청소년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주의할 점을 가르치고 효과적인 이용방법 등을 현실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는 인터넷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서 가족의 유대성이 중요하게 나타난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족 간의 관심과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가정은 사회문제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해결의 기반도 되는 것이다. 가족 간의 유대감의 약화는 인터넷 중독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예방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유대감의 강화가 요구되어지며, 이에 대한 가족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와 임상현장에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을 활용할 필요

가 있다. 현재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사회복지실을 활용하여, 일부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코올사용에 관한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학교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치료프로그램 실천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더불어 가정과 학교와의 조화로운 통합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해주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드러난 몇 가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광주광역시 일부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중독, 가족건강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지역 간, 계열 간(인문계와 실업계) 차이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지원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들은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에는 여러 가지 하위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들만 고려하였을 뿐 인터넷 중독의 여러 하위요인들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더 민감하고 세분화된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가족건강성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에 대한 관련요인의 관계 및 그 경로를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강철,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성옥·맹승렬·유관희, 2005, “컴퓨터 게임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8집 4호, 79-85.
- 권정혜, 2005,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시간에 따른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4권 2호.
- 김경신·김진희,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제6권 1호, 15-25.
- 김광수·장승현·조병만·임을미,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교육논집』, 제16권.
- 김교현, 2001,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실태와 컴퓨터 중독”,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28권, 41-62.
- 김덕희,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우, 2002.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소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화·정영숙, 200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와 아동의 인터넷 중독 경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권 10호, 103-114.
- 김용래, 1993, “학업성취에 대한 기여 및 영향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변인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교육연구논총』, 제17집.

김종원, 2002, “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 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게임 중독의 관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순, 2002,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요인”,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 2005,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사회적 지지 및 인터넷 중독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악과 관련요인분석”, 『청소년학연구』, 제8권 2호, 91-117.

류미라,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및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희·전경자, 2007, “중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수준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청소년학 연구』, 제14권 2호, 71-93.

박소희, 2002,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은,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승문·황미영·김영희, 2003, “사이버공간 중독유형과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환경”,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1호, 169-185.

변주홍, 2006,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강동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복모, 2002,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학교 및 가정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석, 2000,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세라, 2003,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인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어은주·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집, 269-285.

염영란, 2007,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미선·이영옥, 2005, “남·여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 지각, 컴퓨터게임중독, 학업 성적 간 관계모형 비교”, 『교육 방법 연구』, 제17집 2호, 183-197.

윤영민, 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윤재희, 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계원,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대환·최영민·조수철·이정호·신민섭·이동우·김봉석·김봉년, 2006,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강박성과의 연관성 조사”, 『신경정신의학』, 제40집 4호, 616-626.

이명숙, 2005,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학교적응의 차이”,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석범·이경규·백기청·김현우·신수경, 2001, “중·고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우울, 자기효능감과의 연관성”, 『신경정신의학』, 제40집 6호, 1174-1184.

이유경·채규만, 2006, “컴퓨터 게임중독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제25집 3호, 711-726.

이정연·최영선, 2002,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한국생활과 학지』, 제11권 4호, 61-80.

임진숙·강성국·김성식, 2005,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8집 2호, 75-83.

장수나, 2007, “초등학생들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학습동기 및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우민, 2003,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학교적응 및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선일보, 2008, “인터넷 중독에 빠진 아이들”, 9월 11일.

조은숙, 2003, “경기도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학교적응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준범,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애란·박인혜, 2005, “중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게임중독, 스트레스 및 임파워먼트 수준의 차이”, 『청소년복지연구』, 제7집 2호, 37-57.

중앙일보, 2008, “인터넷 중독학생 약 10만 명”, 10월 27일.

차주연, 2002, “청소년의 강인성과 적응유연성이 사회성과의 관계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영선, 2002,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유엔, 2003,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추장희,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미영, 200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상민·한규석, 1999, 『사이버 공간의 심리: 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향해서』, 서울: 박영사.

Duckworth, A. L., Romer, D., & Paek, S., 2007, *Impulsivity sensation seeking and problem solving styles as predictors of academic performance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ublished manuscript.

Griffiths, M. D., 1999,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Vol.

12, No. 5, 246-250.

Hauge, M. R., & D. A. Gentile, 2003. "Video Game Addiction among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Academic Performance and Aggression." *Paper Presented at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Conference April 2003*, Tempa, FL.

Suler,J,1996,"Computer and Cyberspace addition."
<http://www.rider.edu/user/suler/psycyber/>, ausinterview, html.

Young, K. S., 1996. *Internet Addi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conversa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K. S., 1997, "Relationship between Sensation Seeking Behavior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society*, Washington DC.

——,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s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Effect of Healthy Family Relationships and School Adaptation on Internet Addiction in Teenagers

Kim, Hyeong-soo
(Chosun University)
Cho, Woo-hong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ains Internet addiction in teenagers by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school adaptation and healthy family relationships in combating Internet addiction, which has become a serious teenage problem.

This study surveys 417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conduct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hi-square test,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n the sample using the SPSS statistical softwar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Male teenage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poor family relationships, spend more time on the Internet, have lower school life adaptation, and have lower school class adaptation are at the highest risk of serious Internet addiction.

The results show that Internet addiction is related to the

family's psychological health and school adaptation. Therefore, improvement in school life adaptation and class attitude and reinforcement of family relationship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revention and of Internet addiction in teenagers.

Keywords : Healthy family relation, School adaptation, Internet addiction